

나주SRF거버넌스, 결국 좌초되나

합의안 수용 마지노선 다가와 '수용 불가' 난방공사 입장 불변 '허가여부 조속 결정' 판결 변수

공론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가던 나주 SRF(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SRF발전소 운영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6개월이라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한 잠정합의안을 거부하고 애초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4일 있을 제 12차 회의에서 극적인 타결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7일 한차례 연기된 민관거버넌스 12차 회의가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다.

전남도와 나주시, 그리고 주민들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환경영향성 조사 후 주민수용성 조사' 합의안을 받아들일 것을 난방공사 측에 요구하고 있다.

전남도 등은 난방공사가 재협의를 과제로 삼은 '손실보전 비용 주체'에 대한 논의는 '정부를 주체로 한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만들어 단계별로 해결하자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난방공사 측은 나주SRF발전소의 연료를 액화천연가스(LNG)로 바꿨을 때 손실비용을 부담할 주체를 먼저 정해야만 거버넌스에서 논의한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며 합의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는 아직 시작도 안한 주민수용성 조사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같은 난방공사의 태도에 거버넌스의 다른 주체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함께 마련한 합의안은 우리를 우롱하기 위한 것이냐'는 격한 반응을 보이고



'NO 아베' 행렬 광복절을 이틀 앞둔 13일 광주 광산구 수완동 일대 1km 구간에 'NO! 아베, OK! 광복' 현수막이 일제히 내걸려 눈길을 끌고 있다. 이 현수막은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지역위원회가 시민들의 모금으로 제작해 내걸었다. 임정옥기자 jo6005@srb.co.kr

있는 주민들은 "잠정합의안 결과에 의문이 있을 때는 다시 원점으로 돌려도 된다고 난방공사에 제의할 정도로 난방공사에 양보를 해왔다"면서 "12차 회의에서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거버넌스를 탈퇴하고 강경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오는 2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 자녀들의 등교 거부에 이어 도시가스를 이용한 개별난방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각 당사자들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거버넌스의 한 축인 주민들이 당초 예고대로 탈퇴하게 되면 대화

의 장은 사라지고 2년 넘게 지속돼온 극한 갈등이 다시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대로 거버넌스가 좌초되면 나주시가 단독으로 SRF발전소의 가동 여부와 사용 연료를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해야 한다.

지난 8일 나주시가 지역난방공사의 SRF 열병합발전소 사용승인 신고 등을 접수하고 고도 1년 6개월 넘게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나주시가 SRF 사용 승인과 사업개시 신고 수리를 거부하게 되면 발전소 가동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또 SRF 사용 승인은 하지 않고 사업개시만 받아들이면 LNG

를 사용해 발전소를 가동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모두 손실이 발생돼 그에 대한 책임 여부를 가려야만 한다.

일각에서는 SRF발전소를 민간 형식으로 운영할 경우 운영인력과 비용 부분에서 상당한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어 난방공사가 자회사를 만들고 나주시 등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나주시 관계자는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시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알림

제3회 무등 행·의정대상 수상자 확정

행정대상 김영중 종로구청장 등 8곳
의정대상 임미란 광주시의원 등 12명

22일(목) 오후3시 홀리데이 인 호텔서 시상식

제3회 무등 행정대상·의정대상 수상자가 최종 확정됐다. 한국거버넌스학회와 무등일보가 공동주관한 '행·의정대상' 수상자에게는 거버넌스학회장·SRB무등일보 회장이 각각 주어지며, 모두 20개 자치단체와 단체장, 의원 등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번 행·의정대상 수상자는 지난 8일 본사 회의실에서 6명의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확정됐으며, 시상식은 오는 22일 오후 3시 광주 서구 상무지구 홀리데이 인광주호텔 3층 1번홀에서 열린다.

다음은 각 부문별 수상자 내역(괄호안은 응모부문)

행정대상

- ◇자치단체
 - ▲장성군(행정혁신) ▲영암군(경영혁신)
- ◇자치단체장
 - ▲김영중 서울 종로구청장(행정혁신) ▲임택 광주 동구청장(지역발전)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행정혁신)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지역발전) ▲김철우 보성군수(지역발전) ▲정중순 장흥군수(행정혁신)

의정대상

- ◇광역의원
 - ▲임미란 광주시의원 의원(혁신비전) ▲김광란 광주시의원 의원(의정) ▲배수문 경기도의회 의원(지역발전) ▲유성수 전남도의회 의원(의정)
- ◇기초의원
 - ▲홍기열 광주 동구의회 의원(의정) ▲고경애 광주 서구의회 의원(지역발전) ▲박용국 광주 서구의회 의원(의정) ▲조기주 광주 남구의회 의원(의정) ▲박용화 광주 남구의회 의원(지역발전) ▲황도영 광주 남구의회 의원(의정) ▲이정철 광주 북구의회 의원(혁신비전)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원(혁신비전)

광주·전남 대표 정론지 SRB무등일보

74주년 광복절 경축식 독립기념관서 열린다

15년 만...1천800여명 참석
광주송우초 4명 타종 참여

오는 15일 오전 10시 '제74주년 광복절' 정부 경축식이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개최된다. 우리나라 독립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지닌 이곳에서 경축식이 진행되는 것은 2004년 이후 15년 만이다.

경축식 주제는 '우리가 되찾은 빛, 함께 밝혀 갈 길'로, 선열들의 독립 염원의 뜻을 이

어받아 미래세대를 위한 진정한 광복의 길을 열어가겠다는 결기가 담겼다는 게 정부행사를 주관하는 행정안전부 측 설명이다.

특히 주재어의 글씨체는 8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백범 김구선생의 '백범일지'에서 필체를 본따 만들었다.

경축식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 일반 국민, 사회단체 대표, 주한외교단 등 1천 800여명이 참석한다. 행사장 무대는 독립기념관 겨례의 집 내에 있는 '불굴의 한국인상' 앞쪽으로 조성되며, 무대 중앙 뒤편에는

국가상징인 무궁화로 꾸며진다.

행사장 양쪽 벽면에는 대형 태극기가 걸린다. 왼쪽에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의 의미를 살려 국민들의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소망을 담은 '100년의 소원 태극기'가, 오른쪽에는 광복군들의 조국 광복에 대한 염원이 담긴 '광복군 서명 태극기'가 각각 걸릴 예정이다.

행사는 주빈과 생존 애국지사들의 동반입장 후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기념사, 독립유공자 포상, 경축사, 경축공연, 광

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

오프닝 공연에서는 독립군가 '여명의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한 영상이 상영된다. 21세기 독립청년단과 뮤지컬 배우 박영수·장은아씨가 '진정한 광복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는 청년들의 염원이 담긴 뮤지컬 퍼포먼스 '나의 독립을 선포하라'도 선보인다.

경축공연은 '우리의 염원·되찾은 빛·함께 밝혀갈 길' 3개의 주제로 총 6곡으로 새롭게 편성한 창작구성곡인 '광복환상곡'을 선보인다. 이후 독립기념관 내 통일위원회의 동산에서 미래세대 대표인 광주송우초등학교 4학년 학생 4명과 소안도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학생 2명이 타종하고, 광복절노래 제창과 만세삼창으로 행사를 끝내게 된다. 뉴스

"나라 때문에 희생당한 이들 보살펴야"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인터뷰 5면

일제 강점기 교장과 순사의 감언이설과 협박에 근로정신대로 강제징용 당했던 양금덕(90) 할머니는 74회 광복절을 앞두고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양 할머니는 "근로정신대나 위안부 할머니나 국가가 힘이 없어 당한 것이고 말로 못할 고초를 겪었는데 이 사회는 과거에 나몰라라 하고 개인들이 투쟁해왔다"고 말했다. 나라가 힘이 없어 당한 피해를 지금껏 개인들이 거대한 기업과 일본이라는 나라를 상대로 싸워왔다는 설명이다. 양 할머니는 "독립운동 한 이들은 말할 것도 없이 나라가 의해 고초를 당한 국민들은 이제 국가가 보살피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와함께 후세들이 잊지 않도록 교육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석원기자 mdeung@srb.co.kr

2019 달빛(광주·대구) 청년들의 광주 명소 투어

달빛 청년 어울림 한마당

날 짜
· 2019. 10. 11(금) ~ 12(토), 1박 2일

대 상
· 광주·대구 청년 (각 40명/총 80명, 선착순 모집)

코 스
· 1일차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광주비엔날레 ▶ 와이즈파크 ▶ 팽귄마을양동시장 ▶ 빛고을아트스페이스
· 2일차 : 빛고을아트스페이스 ▶ 광주공원 ▶ 천연염색체험 시상식

참 가 비
· 무료 (호텔 숙박, 기념품, 단체티 증정)

주요프로그램
· 마추한 달빛 : 문화지식 배움 및 청년 교류 활성화 - 오리엔테이션 및 미션 수행을 통한 팀구성, 서바이벌 게임 등
· 깊어진 달빛 : 근현대 주요 역사 문화시설 및 미식장소 탐방 - 공연·전시·행사, 체험, 여행, 커피 등 키워드별 체험 / (충장로) 광주 향토음식 체험 / (동명동) 카페거리 투어 / (양림동) 팽귄마을 등 광주지역 근대문화유산 투어
· 익숙한 달빛 :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청년문화 심층 이해 - (빛고을아트스페이스) 미디어아트 체험 및 천연염색 스카프 제작 / (광주공원) 산책 및 자유소통 / (문화전당) ACC 전시관람 /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관람 / (ACC디자인호텔) 향수제작 체험

참가문의
· 무등일보 사업국 062)606-7778

주 회 :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주 관 : 광주문화재단 Kwangju Cultural Foundation 후 원 : 무등일보 每日新聞社